

60개국 900명 전문가 서울로... 국제관광 큰 장 선다

14일까지 '서울국제트래블마트'
16~19일엔 '세계도시관광총회'

전 세계 관광산업을 이끄는 전문가와 여행업계 종사자들이 서울에 출몰한다.

서울시는 '2018 서울국제트래블마트'와 '세계관광기구(UNWTO) 제7차 세계도시관광총회' 참가를 위해 60여 개국 1200여 개 여행 관련 업체와 900여 명의 관광분야 전문가들이 서울을 방문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대규모 릴레이 관광국제행사를 통해 서울의 우수한 관광·MICE 인프라와 관광명소를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2018서울국제트래블마트'는 10~14일 그랜드힐튼 서울호텔에서 개최된다. 서울국제트래블마트는 국내·외 업체 간 현장 상담, 홍보, 계약을 통해 관광업체들이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관련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장이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이 10일 오전 서울시청사에서 '2018 서울국제 트래블마트 및 세계도시관광대회 개최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행사에서는 400여 개의 해외여행사가 20개의 한국업체와 미팅을 가져 총 8000번의 기업 간 만남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국내 영세 관광업체들이 개별 만남을 갖기 어려웠던 아프리카지역 3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이집트)을 초청, 신홍시장 개척 기회를 마련했다. 국내·외 업체 간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기간은 지난해 2일 16회에서 올해 3일 20회로 늘렸다.

'세계관광기구(UNWTO) 제7차 세계도시관광총회'는 16~19일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도시 관광분야 세계 최대 국제회의로 역대 최대 규모이자 동북아 국가에서 처음 개최되는 행사이다.

UNWTO 세계도시관광총회는 도시관광의 비전과 주요 이슈를 고민하고, 새로운 연대 전략을 논의하는 도시 간 협력의 장이다.

올해에는 '2030 미래 도시관광'을 주제로 세계 50개국 900여 명이 참석한다. 스페인과 태국의 관광부 장관, 파리, 마카오, 쿠알라룸푸르, 마드리드 등 주요 관광도시 대표단, 관광 관련 석학, 업계 인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총회에서는 세계도시가 직면한 4차 산업혁명과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해법을 고민한다.

행사 첫날에는 경제학자 조셉 파인의 기조연설, 고위급 라운드 테이블이 준비

됐다. 이어 미래 도시관광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도시관광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세션 토론이 진행된다.

18일에는 도시재생을 바탕으로 한 도시관광의 성공사례를 공유한다. 세션 주제는 '모두가 행복한 공정관광'이다. UNWTO 보고서('오버투어리즘 인식을 넘은 도시관광성장의 이해와 관리') 발표와 청년관광총회도 마련됐다.

시는 총회기간 중 관광과 토론을 함께하는 '네트워킹 투어', 야경과 소풍을 결합한 '서울야경투어', 외국인에게 관심이 높은 'JSA+DMZ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해외 주요 관광도시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관광업계와 세계시장과의 비즈니스 교류지원을 적극 추진해 글로벌 리딩도시 서울의 위상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R&D육성 허브 마곡 '공공지원센터' 착공

연면적 2만1425㎡... 2021년 개관
강소기업·스타트업 공간 70곳 임대

서울시는 마곡산업단지에 강소기업을 통합 지원·관리하는 R&D 육성허브 '공공지원센터' 건물의 공사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공지원센터는 2021년 5월 개관을 목표로 한다.

공공지원센터는 마곡산업단지 내에 지하 4층~지상 8층, 연면적 2만1425㎡ 규모로 조성된다. 센터에는 ▲R&D 중심 강소기업 입주공간 ▲스타트업 발굴·육성 공간 ▲비즈니스 지원공간(사업·투자·컨설팅) ▲국제회의실 ▲산업단지 관리기관 ▲홍보전시관 등이 들어선다.

센터는 강소기업 입주공간(40개)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할 연구 공간(30개)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한다. 재



마곡산업단지에 들어서는 R&D 육성허브 '공공지원센터' 조감도. /서울시

정적 한계로 토지 매입, 건축이 어려운 강소기업·스타트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다.

센터에서는 강소기업·스타트업을 위한 경영컨설팅, 기술사업화, 투자지원, 인재양성 교육 등이 운영된다.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 대학·공공연구기관 유치, 기술교류, M-밸리 포럼, 강소기업 지원을

위한 발전기금 조성도 함께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0일 오전 10시 착공식과 간담회를 가졌다. 행사에는 박원순 시장, 입주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R&D 융복합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미래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시민공모를 통해 공공지원센터 명칭을 선정한다. 접수기간은 30일까지이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일정, 신청 방법, 시상 내역 등은 '내 손안의 서울'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정수용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착공으로 입주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더불어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산업 간 융합할 수 있는 R&D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하늘은 벌써 가을 10일 오후 서울 한남대교 인근에서 바라본 남산 N서울타워 일대의 하늘이 맑다. /연철뉴스

마포구, 메르스 확산방지 긴급대책회의

서울 마포구는 10일 오전 유동균 마포구청장 주재로 메르스 긴급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마포구 간부급 공무원들이 참석해 메르스 감염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유 구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철저한 초동

대처와 예방수칙, 시민 행동요령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마포구 보건소는 메르스 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한 24시간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 구는 감염병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반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대기오염 배출가스 위반사항 123건 적발

서울시, 마을버스 94대 개선명령

서울시는 7월 30일~8월 31일 휘발성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벌여 1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 624곳을 점검해 9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위반유형을 보면, 유증기 회수설비 정기검사 부적합 6건, 휘발성 배출시설 대표자 변경신고 미이행 2건, 유증기 회수설비 정기검사 미이행 1건이었다. 시는 개선명령 6건, 경고 2건, 과태료 1건에 200만원을 부과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대기 중에 휘발돼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 화합물이다. 피부에 접촉하거나 호흡기로 흡입하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이다.

시는 마을버스 1558대를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시는 94대에 개선 명령 조치를 내렸다. /김현정 기자



휘발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모습. /서울시

이와 함께 친환경 기동반을 편성해 마을버스 공회전 자동차 1만2017대를 점검하고, 위반차량 20대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신대현 서울시 기후대과장은 "여름철 휘발성 배출시설을 특별관리하고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면 오존농도와 미세먼지가 줄어 대기질에 도움이 된다"며 "휘발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회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 서울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서울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10~21일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제한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검사명령이 내려진다.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므로 포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과류의 경우 공기(질소) 주입한 음료식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이 35%를 넘으면 안 된다. /김현정 기자

13~15일 서울광장 일대서 '도시재생 엑스포'

7년 추진 성과와 국내외 사례 공유

서울시는 13~15일 서울광장과 시청사에서 '2018서울 도시재생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행사 주제는 '도시를 깨우는 비법(도깨비)-사람, 공동체, 그리고 도시재생'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 7년간 추진해 온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국내·외 사례를 공유해 도시재생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내·외 도시재생 활동가와 전문가가 참여한다.

서울 도시재생 엑스포는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도시재생 정책을 공유하는 '도시재생 국제 콘퍼런스' ▲도시재생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는 '도깨비 상상관' ▲시민이 직접 만들고 참여한 공연과 마켓, 재생 사업 안내, 체험행사로 이뤄진 '도깨비 실험터' ▲현장의 이슈를

을 시민의 시선으로 논의하는 도시재생 정책대전 '도깨비 테이블'로 구성됐다.

행사 첫날 오후 1시 서울광장에서 개막식이 열린다. 개막식 이후 '도시, 사람을 묻다-인문도시를 향하여'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가 열린다.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콘퍼런스는 시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된다. 콘퍼런스에서는 서울 세운상가, 성곽마을 등을 포함, 세계 각국의 도시정책 사례가 소개된다.

행사 기간 동안 서울광장에는 '서울형 도시재생 기획전'이 운영된다. 기획전에서는 25개 서울지역 도시재생센터의 활동, 문화비축기지와 돈의문마을 등 서울 도시재생 대표 사례가 전시된다.

이외에도 도시재생지역의 콘텐츠를 판매하는 '도깨비마켓', 창신·송인 지역의 봉제산업을 선보이는 패션쇼 등이 마련됐다. 자세한 프로그램 일정은 '서울 도시재생 엑스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